

# 정유4사, 쉴 땐 쉬면서 일한다!

## SK이노, 야근 많으면 인사에 불이익 ... 여름휴가 2주는 기본

국내 정유기업들이 쉴 땐 쉬는 휴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2주 정도의 충분한 휴가는 기본이고 직원이 야근을 하면 팀장이 보너스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설비를 가동해 휴일 없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휴식을 운운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옛말이 됐다.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은 팀장 등 임원들의 인센티브 및 인사평가에 초과근무현황과 개선 여부를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7월1일부터 <초과근무 제로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팀장은 직원들의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퇴근을 독려한다. 야근이 불가피한 직원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오후 7시에는 냉난방도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기업 최초로 직원의 야근과 팀장의 인사고과를 연결하는 등 <야근 철폐>를 위한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구자영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구자영 부회장은 2009년 3월 SK에너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모토를 내세우고 “만성적인 야근이야말로 조직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악”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구자영 부회장은 2010년 여름휴가를 2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초과근무 제로화 프로젝트>는 즐겁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라면서 “관행적인 근무방식을 혁신해 일하는 엄마·아빠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Oil(대표 나세르 알 마하서)은 직원의 휴가가 남으면 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개시한 <집중휴가제>로 모든 임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2주 이상 연속된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우선 연초에 집중휴가 계획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휴가 사용 결과를 팀장 등 관리직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관리직이 휴가를 갈 때에는 다른 부문의 부서장이 대리하는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어 싱가포르 지사장의 휴가 때 한국본사 팀장이 현지로 파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il 관계자는 “<집중휴가제>를 통해 임직원의 재충전은 물론 사내소통도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2년 9월부터 수요일에는 오후 5시30분 정시 퇴근하는 <패밀리데이>도 시행하고 있다.

GS칼텍스(대표 허진수)는 2009년 정유기업 가운데 최초로 휴가를 2주 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 국내 28개 콘도 회원권을 확보해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숙소는 추첨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대표 권오갑)는 2주간의 <집중휴가제>와 더불어 매달 1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족사랑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승진한 임직원에게는 해당연도에 1주일의 <안식휴가>를 추가로 제공해 총 3주의 느긋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8>